

8월 세수 3.8조 늘었지만...추경으로 나랏빚 800조 육박

지난 8월 세금이 1년 전보다 더 걸렸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나랏빚이 8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수가 더 걸렸다.

8월 소득세는 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년보다 1개월 빠른 8월에 조기 지급을 완료(-1조9000억원) 등으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중 일부(4조3000억원)가 납부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도 8월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국세(3조6000억원)도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중간 예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11조원)가 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관세(5000억원)도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8월 세수는 늘었지만, 1~8월 누계 세수는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68.8%(3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71.4%)보다 2.6%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8월

1~8월 국세수입 192조5000억원...17조 감소

소득세, 세정지원 일부 납부로 3조2000억 ↑

국가채무 794조1000억...전년비 13.1조 증가

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 71.2%보다 2.4%p 낮았다.

법인세가 4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줄었고 부가세(45조8000억원)와 관세(4조4000억원)가 각각 4조원, 1조1000억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58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0조1000억원)와 기타(26조4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8월 말 기준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분 잔액(-4조9000억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누계액(-2조6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8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9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8월 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1~8월 누계로는 17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기여금,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 대상 융자원금 회수 등 기금수입은 8월 전년보다 6000억원 늘은 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월 누계는 10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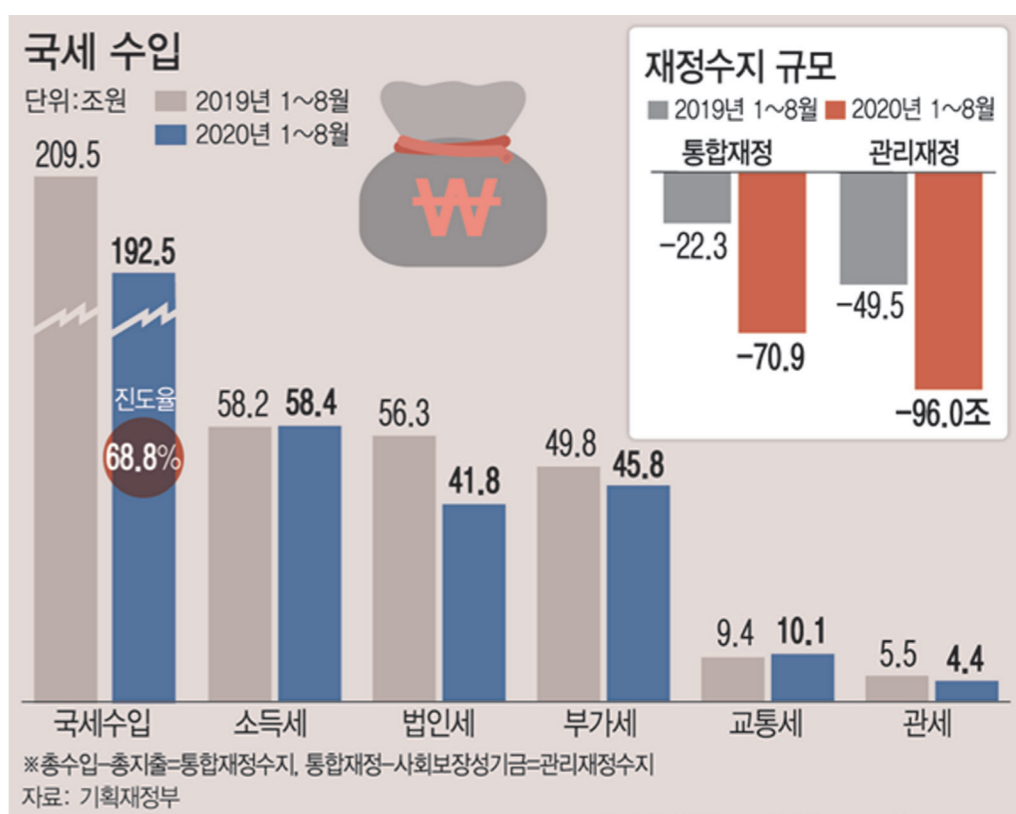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8월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8월 누계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8월 총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조원 증가했다. 1~8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8000억원 증가한 38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8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월 2조1000억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하지만 1~8월 누계로 총수입이 감소하고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8조5000억원 늘었다.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46조5000억원 적자 규모가 커졌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94조1000억원으



로 전년보다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8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비는 연간 계획 308조8000억원 가운데 8월까지 233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75.5%로 전년보다 1.9%p 감소했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76.9%인 200조6000억원을, 공공기관이 67.8%인 32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8월 말 기준 세정지원 납부 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산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승호기자



기아자동차, 2021년형 K7 출시

외장컬러 2종 추가...전자식파킹브레이크·변속레버 등 기본적용

기아자동차가 12일 상품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2021년형 K7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2021년형 K7은 새로운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추가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기아차는 K7에 비행기의 힘찬 이륙을 연상케 하는 '커스텀 그릴'을 새롭게 추가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스틸 그레이와 인터스텔라 그레이 등 신규 외장 색상 2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고객 선호 편의 사양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전자식 변속 레버(SBW), 패들 슈프트, 고성능 공기 청정 필터를 갖춘 모텔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기본 적용해 상품성

을 강화했다.

향상된 운전 편의성도 경험할 수 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FCA-JT)를 신규 탑재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준다.

음성 인식 차량 제어 범위를 확대했다.

음성으로 장문을 여닫을 수 있고 시트·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을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하다.

기아차는 2021년형 K7의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 성능 강화를 위해 리어 글라스 두께와 운전석 휠 가드 흡음 면적을 증대하는 등 소음진동(NVH)도 개선했다.

김민정기자

“역시 삼성, 韓 경제 버팀목”...2분기 연속 깜짝실적에 재평가

4분기 반도체 이익 줄겠지만 내년전망 밝아

삼성전자가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코로나19 속에서도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호실적에 주가가 6만원대 안팎을 기록하며 일각에선 주시보유액 3억원 이상인 큰손 '동학개미'들의 최대 33% 세금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4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과 화웨이향 반도체 출하 감소로 반도체 이익이 다소 줄며 잠시 쉬어가게지만, 내년부터 다시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은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13조원(+24.5%)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4조2000억원(+51.5%)이나 늘었다.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지만, 매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잠정실적이라 부문별 영업이익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반도체 5조5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IM 4조7000억원, 가전(CE) 1조5000억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출하가 전분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고, 평균판매단가도 상승한 반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IM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9.4%에서 15%로 대폭 개선됐 것으로 관측된다.

CE도 IM과 마찬가지로 유통 채널의 재고 빌드업 효과로 TV 출하가 급증한 반면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관리 비용 감소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화웨이향 이른바 '러시 오더' 효과와 낸드 출하증가로 반도체마저도 2분기를 상회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19일 일 저점(4만2300원)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39%가량 반등했지만 여전히 다른 주요종목들과 비교할 때, 추가 상승 폭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실적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가격 조정의 마

지막 고비가 남아 있지만, 내년 초 이후 서버고객들의 재고 이슈도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도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 기여도가 큰 메모리 업황은 저점을 지났고, 비메모리 실적도 3·4분기부터 중장기 성장 국면 진입했다"며 "스마트폰(IM) 부문도 화웨이 제재와 중국·인도 관계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과 원가절감 효과로 실적 레벨업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유한 순현재가치 자산만 약 90조원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어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생활 습관화로 비대면 IT로의 추세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라며 "이에 현재 단기적으로 비교적 부진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실적도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기동취재본부

4분기 은행 '대출문턱' 높아진다

“가계·기업 신용위험 높아질 것”

4분기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여신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기업과 가계대출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간간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대도지수는 -5로 전분기(0)보다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100~-100)가 플러스(+)면 완화,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한은이 201개 금융기관 여신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가계주체에 대한 대출대도는 -6으로 3분기(-18)보다 올라갔지만,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여전히 주택대출을 까다롭게 내주겠다는 의미다.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대도는 -9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10)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도 대기업(-3)과 중소기업(-3) 모두 소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장, 재취업조건 등은 다소 완화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행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지수는 24로 지난 3분기(31)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4분기(1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가능성 등으로 중소기업(24)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의 신용위험(26)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부동산 확보 필요성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



업의 대출 수요가 늘 것"이라며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주택관련 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일반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대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상호저축은행(-11)과 상호금융(-23), 생명보험회사(-7) 등이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카드사(0)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신용위험지수는 상호저축은행(34)과 상호금융조합(35), 생명보험회사(34)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봉우기자

관심도·호감도 이마트 톱...롯데마트 최저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이마트, 순호감도 46.15%로 1위

국내 3대 할인마트 중 소비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뉴스, 커뮤니티, 카페,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12개 채널 22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7~9월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12일 내놨다.

조사 결과 이마트의 온라인 포스팅 수가 19만510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13만8570건으로 2위, 롯데마트는 10만6395건으로 3위였다.

지난 6월 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정보량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포스팅 수가 4만~6만여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

관심도 1위였던 이마트가 순호감도 46.15%로 1위였다. 순호감도는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으로, 중립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순호감도 2위는 홈플러스(39.70%), 3위는 롯데마트(38.97%)였다.